

근대역사 체험시장으로 발돋움한다

군산시 '명산시장 빛고운 야시장' 공모사업 선정... 10억 원 투자 2차 야시장 사업 추진

군산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야시장 공모사업에 근대 체험 시장으로 특화된 명산시장 및 고운 야시장 사업을 신청해 지난 14일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 특별교부세로 국비 5억 원을 지원받는다.

명산시장 빛고운 야시장은 군산시가 지난 2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특화해 이끈에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빛의 거리를 조성·개장(금/토요일 오전 5시~9시)한 시장으로 주말 야간 먹거리 관광명소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곳이다.

시는 야시장 사업이 기존 명산시장 상인들의 매출증대에 효과가 있으며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야시장 사업 확대를 위해 지방비 5억 원을 추가, 총 10억 원을 투자하여 2차 야시장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야시장의 먹거리 매대 10개로는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부족하여 먹거리 매대를 확대하고, 빈 점포를 근대상점(점방,아발소,양장점,대방), 인력거 대여소, 군산택 아재가게로 리모델링 근대시장으로 특화할 계획이다.

또한 근대우물 쉼터 조성, 매대 보관소와 근대교육장, 관광미디어 보드, 루미나리에 시설 확충과 함께 이벤트 행사도 다양하게 정기적으로 개최해

불거리 체험거리가 풍성한 야시장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문용목 지역경제과장은 "명산시장 야시장 사업이 기존 상인들의 매출에 도움이 되며 시간여행 마을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는 야간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야시장 2차사업 추진으로 전국에서 유일한 근대역사 체험시장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

국가예산 확보 계획 보고회 개최... 사업별 추진 전략 모색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15일 부시장실에서 2019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발굴된 2019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금액 6,584억원에 대한 부서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중앙부처 사업별 국비가 모두 반영될 수 있는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를 위해 시는 부처예산안 편성이 종료되는 5월 중순까지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등 관련 기관에 일제 출장을 실시하고 업무 관계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건의하여 요청한 국비가 중앙부처 예산안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획재정부 심의가 시작되는 6월 부터는 건의된 중앙부처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항우인사 및 정치권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7월부터 8월까지는 기획재정부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해 관련부처 대책회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추진하는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공모사업(우남아파트, 남부시장)(24억원), 익산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15억원), ▲마루사지관광지 기반 시설공사(10억원), ▲보훈회관 건립 사업(5억원) 등이 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사업(165억원)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131억원) ▲하수처리기 감량화 사업(70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30억원) 등이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국립합창단, 군산예술의전당 무대 선다

'칼오르프의 까르미나 부리나' 국비공모사업 선정

군산예술의전당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국립예술단체가 주관하는 2018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공모'에서 국립합창단의 대표공연 '칼오르프의 까르미나 부리나'에 선정되어 오는 6월 9일 대공연장 무대에서 군산시민에게 선보이게 된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나눔을 통해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개개인의 문화수준을 향상시켜 문화적 격차 해소를 문화 복지정책을 실현, 지역문화 향유에 기여하고자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군산시는 3년 연속 선정됐다.

국립합창단은 1973년 창단 이후 르네상스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유명합창곡을 모두 무대에 올림으로써 합창음악의 모든 장르를 폭넓게 소화해내고 있다.

또한 합창의 대중화와 합창음악

의 예술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국내뿐 아니라 유럽, 미국, 중국 등 해외공연을 통해 수준 높은 한국 합창을 널리 알리고 있는 세계 최고의 전문합창단이다.

올해 선정된 국립합창단의 칼오르프의 까르미나 부리나는 국립합창단의 히든 레퍼토리로 약 60여명의 오케스트라와 국내 최고의 솔리스트를 통해 합창의 강렬하면서도 웅장한 울림, 호소력 있는 선율을 선보일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청렴실천운동 저변확대 위한 업무간담회 실시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15일 분청 1층 홍보관에서 민간단체인 익산시새마을회와 청렴실천운동 저변확대를 위한 방안모색과 공동 노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업무간담회를 가졌다.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근절 및 청렴문화 정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민

간 구성원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부패를 예방하고자 시는 지난해 4월 20일 익산시새마을회와 청렴실천운동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한 지역사회의 청렴환경 조성에 공동노력하기 위해 서동축제 및 국화축제 기간에 청렴부스를 공동운영하고 명절에는 청렴캠페인을 실시했

으며 시민의 김장담기 행사에도 공동 참여해 청렴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국승원 감사담당관은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청렴이 사회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되는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매월 12일 전국체전의 날 지정 익산시 체전 홍보·환경정비

2018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주 개최자인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매월 12일을 전국체전의 날로 지정해 시민과 함께 도심환경정비 및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 2월 22일 전국체전 개최식날인 10월 12일에 맞춰 매월 12일을 전국체전의 날로 선포한 익산시는 읍면동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이·동장협의회로 구성된 시민홍보대사 58명과 일반익산시민, 익산시 종합행정담당부서 직원들과 함께 각 읍면동 주요 거점에서 전국체전 도심환경정비와 체전홍보물을 배포하며 대대적인 활동을 실시했다.

전국체전의 날 행사는 개최식날인 10월 12일까지 매월 실시하며, 전국체전 봄 조성은 물론 전국체전 기간 중 방문할 선수단과 관광객 등에게 깨끗하고 질서 있는 익산시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도심환경정비 진행했다.

또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공공시설 깨끗하게 사용하기, 불법 주·정차 하지 않기, 쓰레기 무단투기 하지 않기, 밝은 표정으로 먼저 인사하기,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생활화하기, 방문객에게 친절하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기, 상호 비방하지 않기, 어려운 이웃돕기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펼쳤다.

정현율 시장은 "2018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은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없이 성공적인 개최는 불가능하다"며 "이번 전국체전으로 익산시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강성욱 군산시장 예비후보 '매니페스토선거로 정책선거 선언' 제안

강성욱 군산시장 예비후보는,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경선이 화합과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장 및 시·도의원 예비후보가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 군산시 매니페스토(참공약선택하기)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강성욱 군산시장 예비후보는 또,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서라도 시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민주당 경선이 정책선거, 공명선거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를 중심으로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준수, 금품과 향응 배격, 상대 후보에 대한 지나친 공격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강 예비후보는, "공정하고 깨끗한 당 경선이 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뿐만 아니라 각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자원봉사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이 검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가능성을 함께 발표함으로써 공명선거, 정책선거를 모범적으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급조된 공약과 빈약한 정책 아이디어는 사회갈등비용을 초래한다"며 '매니페스토선거'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정식 업무 개시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15일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을 개최하고 주민 밀착형 맞춤형복지로 주민들의 환호 속에 복지하브의 문을 활짝 열었다.

동산동 행정복지센터는 1988년 준공되어 낡고 협소했고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협소한 주차장 또한 주민불편을 초래해 새로운 청사 건립이 절실했다.

이에 지역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코자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지난 2015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 6월 공사착공을 시작해 2월 공사를 완료했다.

동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총 사업비 약 60억 원을 투입해 6,600평방미터 부지에 지상 5층 연면적 2,359평방미터 규모로 건립하여 5월부터 현 행정복지센터에서 정상 업무를 개시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어린이 행복돌봄길

풍화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www.jmaeil.com